

지역 소식통

완주군, 블루베리 전용운반차 보급

완주군은 블루베리연구회 42농가에게 농작업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륜 전동운반차 30대를 보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한 일륜전동운반차는 접었다 폼다 할 수 있는 보조바퀴를 설치해 기존 운반차의 한쪽 쏠림현상을 방지했다.

또한 수확한 블루베리를 담은 콘티상자 크기에 맞춘 적재함과 가이드바를 설치, 여성이나 노령층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3~4회의 전문가컨설팅과 현장시연회를 통해 여성과 노인도 편하게 농작업 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한 후 보급함으로써, 30% 이상의 노동력 절감과 작업능률 향상이 기대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금연사업 추진 업무협약식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29일 전북금연지원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보건센터와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공동으로 김제시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을 감소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특히 전북금연지원센터는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숙형 금연지원서비스 등 금연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금연사업을 지원하며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에서는 관내 사업장 보건교육 시 금연교육 등 직간접적으로 지역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소방서, 등산로 구급함 일제정비

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는 29일 여름철을 맞아 금산면 모악산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구급함 5개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급함 일제정비는 등산객들의 혹시 모를 부상에 대한 응급처치를 돕고자, 소방공무원이 구급함 훼손여부 등 관리상태를 점검·부족한 의약품을 보충하고, 더불어 금산 남·여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인근지역에서 산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급함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구급함에 표시된 김제소방서 현장대응단(063-540-4251)이나 금산119안전센터(063-540-4284)에 문의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국 두 번째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완주군의 아동친화도시 활동을 위해 대학생들이 앞장선다.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로 '앞장'

완주군, 대학생참여위 발대식 개최... 조성활동 기획·프로젝트 형식 진행

전국 두 번째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완주군의 아동친화도시 활동을 위해 대학생들이 앞장선다. 지난 26일 완주군은 3월 한 달 동안 아동친화도시 대학생참여위원회(대학생 서포터즈)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전북지역 대학생 35명에 대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대학생들은 전북대, 우석대, 한일장신대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 행사에서는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김용수 한

일장신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황지옥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홍문기 박사(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가 주제강의에 나섰다.

이들은 각각 '대학생참여위원회, 왜 중요한가', '도시계획과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정책' 등을 주제로 강연해 대학생참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아동친화도시 대학생참여위원회는 대학생이 주체가 돼 아동친화도시 조성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참여위원회별로 아동친화도시 활동이 전개되며, 총 활동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박성일 군수는 "대학생참여위원회 활동이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의 다양한 정책제안 활동과 아동청소년의 권리옹호를 위해 시도되는 국내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운동 전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나서

9월 30일까지... 특별보호·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등

김제시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추진기간을 정하고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주요대책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관리와 무더위쉼터 운영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폭염 취약계층인 노약자,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 803명과 연락망을 구축하여 방문 건강체크와 안부전화 등 보호,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평소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인정, 금융기관, 관공서 등 냉방시설이 잘 갖춰

진 시설을 무더위쉼터(261개소)로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무더위쉼터 일제점검을 통해 냉방기 정상 가동여부 및 관리,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대비 3대 건강수칙 및 국민행동요령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야외활동을 삼가하고 무더위쉼터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향교에서 선비체험 진행

순수 토종 천자문 '대동천자문' 교육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대동천자문 어린이 아카데미'라는 주제로 지난 27일 김제향교에서 대동천자문 교육 및 선비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제시는 지역민들에게 문화재 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프로그램 중 '대동천자문 어린이 아카데미'는 대동천자문의 주요 구절과 역사를 쓰고 익히며, 선비복을 입어 옛 선비가 직접 되어보는 체험을 진행했다.

'대동천자문'은 한학자 김균이 '천자문'의 체제를 본떠 만든 순수 토종 천자문이다. 그가 30여년의 집필 끝에 1948년에 완성한 것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대부분 일제침략하에서 독립의 의지를 불태

우면서 집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천자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바탕으로 하나의 거대한 서사적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 한자학습과 더불어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민족의 한자교육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향교에 비치된 유생복 체험을 시작으로 향교 내부를 탐방하며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 기본예절교육이 이어진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향교의 본연의 기능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옛것을 계승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문고지신의 정신으로 쉽고 재미있게 천자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김제향교의 기능을 되살려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 현장에서 발견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그린이엔티,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무협약 체결

김제시와 그린이엔티(주) 김제지점은 최근 건설폐기물(절삭아스콘 및 상온 아스콘)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제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관내 도로 재포장 공사에서 발생된 절삭 페아스콘에 대하여 운반비만 부담하고 재활용업체에서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절삭 페아스콘은 재활용하여 도로 포장시 기층재로 사용 가능함에 따라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골재채취에 의해 발생했던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수입 원자재 절약 및 페아스콘 유해 물질의 토양

유입 방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김제시는 연간 1만3천톤의 페아스콘을 재활용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강식 건설과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최소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절감된 페아스콘 처리비용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여성일하기센터, 지도자 양성과정 전원 수료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여성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공예 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생 전원이 가족공예 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29일 여성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 가족공예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 15명 전원이 수료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총 180시간 동안의 교육과정을 거쳤고, 교육기간동안 20여개의 작품들을 만들어 가족공예 지도사 2급 자

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공동체 창업을 위해 참여한 김기은 씨는 "새일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과 연계해 창업자금 및 판로 확보 등 창업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었다"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완주 여성새일센터는 취업 관련 교육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나 완주 여성새일센터(290-3881~6)에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경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